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8월 미 무역 적자 전월 대비 24% 감소...발표 통계 늦어

[미국 금융]

- Bloomberg: '달러 주도 시대' 막 내린다
- WSJ: 엔비디아 실적과 늦어진 9월 일자리가 월가 향방 '결정'

[미국 행정부]

- Bloomberg: 트럼프의 연준 공격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무역전쟁]

- Bloomberg: '높은 관세와 협력 약화로 미국의 아시아와의 유대 약화'
- Bloomberg: 무역전쟁 이후 글로벌 경제적 상황은?

[원유]

- Bloomberg: 유가 하락...미 공급 증가로 지정학적 우려 완화

[AI와 비즈니스]

- WSJ: 기업들 "AI가 인력 감축의 이유"라고 말한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판매 부진 Target, 매장 업그레이드에 수십억불

[미국 경제]

WSJ: U.S. Trade Deficit Fell in August, Delayed Figures Show

8월 미 무역 적자 전월 대비 24% 감소...발표 통계 늦어

- 오늘 수요일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8월에 미 무역 적자가 감소했다. 정부 셧다운으로 통계 발표가 지연되었다.
- 수입 규모는 7월에 비해 5.1% 줄어든 총 3천4백4억달러를 기록했다.
- 수출은 0.1% 줄어든 2천8백8억 달러. 여전히 수입이 많다.
- 이에 따른 무역 적자는 7월의 7백82억달러에서 24%나 줄어든 5백96억불을 기록했다.

 WSJ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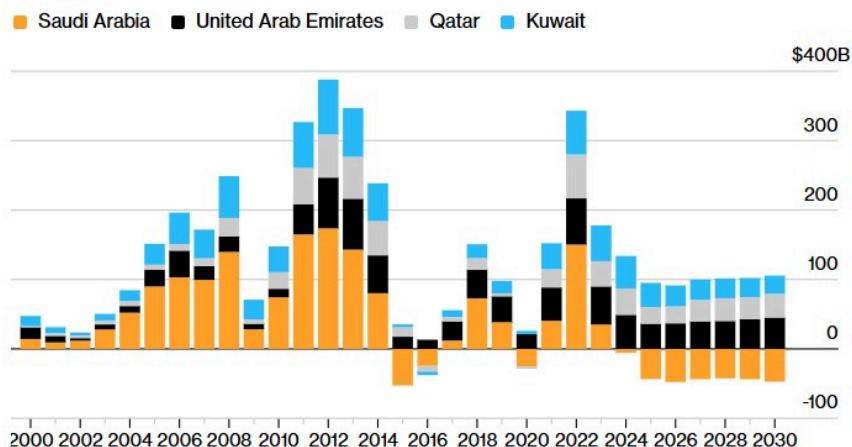
[미국 금융]

Bloomberg: The Era of Dollar Dominance Is Coming to a Close '달러 주도 시대' 막 내린다

- 연방정부의 높은 부채가 늘어나고 백악관이 연준의 독립성을 공개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자산은 예전만큼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 달러가 한때 '방패' 역할을 했으나 이제는 '칼'이 되었다. 미국은 이를 지정학적인 힘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달러를 보유한 중국과 걸프지역 국가들에 위협이 되고 있다.
- 중국과 미국의 이해관계는 점차 멀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정부의 서구에 대한 투자 안전성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고, 중국 국가들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안보 대가로 에너지 협력'이라는 합의가 흔들리고 있다.

Dwindling Capital Outflows From the Gulf

Current-account balance of select Middle Eastern nations, actual and IMF forecast*



Sourc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Forecasts for the UAE, Qatar and Kuwait begin in 2024. Forecasts for Saudi Arabia begin in 2025.

Bloomberg 기사

WSJ: Nvidia Results and Delayed Jobs Data Set Up Critical Test for Wall Street 엔비디아 실적과 늦어진 9월 일자리가 월가 향방 '결정'

- 오늘 수요일장을 마감한 직후 열리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그동안 정부 셧다운으로 발표가 연기된 9월 일자리 보고서가 최근 증시 조정 이후 증시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S&P 500은 올해 13% 상승했고 최고점에서 최근 4% 정도 하락했다. 그러나 최근 기술주의 조정은 증시에 계속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시사되고 있다.
- 5개의 주요한 데이터센터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클라우드 기업) 천60억달러 규모의 자본 지출을 했는데 현대 45%의 펀드 매니저들은 인공지능 버블을 톱 리스크로 보고 있다.

WSJ 기사

[트럼프 행정부]

Bloomberg: How Trump's Fight Against the Fed Could Trigger a Stagflation Slump

트럼프의 연준 공격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 트럼프는 연준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연준 이사 Lisa Cook을 해고시키려 하고 있고 트럼프 경제 측근 Stephen Miran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멤버로 앉혔다.
- 트럼프의 연중에 대한 통제가 단기적으로는 건강한 경제 성장과 낮은 고용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인플레이션 고통과 성장 약세의 고통스러운 약세가 뒤따를 수 있다.
- 즉, 연준 독립성을 훼손해서 단기 성장을 기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고용, 인플레, 생산 비용 등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Bloomberg 기사

[무역 전쟁]

Bloomberg: The Asian Century Rolls On as Trump Risks Freezing

America Out

‘높은 관세와 협력 약화로 미국의 아시아와의 유대 약화’

- 트럼프의 경제적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는 2천년대를 ‘아시아 시대’로 스스로 생각하는 아시아로부터 미국을 고립시키는 위험성이 있다.
- 미국과 아시아의 무역 관계는 1940년 이후 가장 가파른 미국 관세에 직면해 있는데다 사람들간의 교류도 줄고 있다.
- 아시아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미국 제일주의’를 우회하기 위해 경제를 재편하고 있으며 인도와 중국의 서로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고 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Terminal Tariffs: Modeling the Final Destination of Trump's

Trade War

무역전쟁 이후 글로벌 경제적 상황은?

- 트럼프의 관세 조치로 작년 2%의 관세 수입이 16%로 늘어나 지난 1930년 이래 최대 규모다. 이로서 많은 국가들은 패자요, 적은 국가들만 승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 싱가포르, 스위스 등 개방적인 작은 국가들 입장에서는 보복관세나 관세 동맹을 피하는 방법이 적어도 덜 나
- 뿐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 미국은 향후 무역관계에 있어서 중국에 계속 관여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다른 경제적 여파는 3가지 시나리오에 따를 다를 것이다.

- 세 가지 시나리오는 중국과의 데탕트,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 미국 중심의 북미 보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Bloomberg 기사

[원유]

Bloomberg: Oil Slides as Rising US Supplies Help Allay Geopolitical Worries

유가 하락...미 공급 증가로 지정학적 우려 완화

- 미국의 늘고 있는 원유 재고가 이란에서 러시아와 베네수엘라로 번지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원유는 크게 하락했다.
- 브렌트유는 일주일 만에 가장 낮은 배럴당 63불을 기록했다. 미원유연구소(API)은 미국의 원유 재고가 4백40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상업용 탱크에 저장된 원유는 지난 5개여월 이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 이 같은 공급 증가는 러시아 원유 생산업체인 Rosneft PJSC와 Lukoil PJSC에 대한 미국의 보복 조치가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이 같은 보복 조치의 여파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현재 러시아기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끝내라는 압력으로 러시아 원유회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AI와 인공지능]

WSJ: Companies Are Warming Up to Saying AI Is the Reason for Job Cuts

기업들 “AI가 인력 감축의 이유”라고 말한다

- 기업 Deutsche Lufthansa AG는 인공지능의 사용 증가로 회사내 행정직 인력을 줄일 예정이다.
- 기업들은 일자리 축소의 원인으로 AI를 인용하고 있는데 지난달 미국에서 발표된 전체 일자리 축소 수치중에 5분의 1인 인공지능 때문이라고 거론되고 있다.
- 기업 책임자들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 주도의 경제에 대비하기 위해 인력을 축소하거나 늘리지 않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고용을 줄이고 직원을 감축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Target to Invest Billions to Upgrade Stores as Sales Slump Continues

판매 부진 Target, 매장 업그레이드에 수십억불

- 소매 체인인 Target이 내년에 추가로 1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총 50억 달러를 새로 추가할 예정이다. 매장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고 디지털 운영 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 이 회사는 3분기 매출이 2.7% 하락해 12개 분기 즉, 4년 연속해 매출이 하락하거나 약세를 보인다.
- 이 회사는 올해 전체 기간에 수익을 주당 7달러와 8달러 사이로 전망을 낮추었다. 이는 이전의 7달러에서 9달러보다 하향 조정된 것이다.

WSJ 기사

KOCHAM | 460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